

자격제도, 보수교육 위한 활동 전개

Apinya Wechayachai 태국 타마스트대학 교수

이혁준 객원기자

▶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소개와 Thammasat 대학 사회복지학부에 대해 소개해주시시오.

나는 3년 동안 이 대학의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국 사회복지 기금조성 및 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태국의 아동보호 체계 개발'에 대해 연구조사와 강의를 하고 있다. 또 UNICEF 태국지사의 '태국내 쓰나미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 학부는 사회복지학과와 지역사회개발학과 두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천 현장인 기관이나 사회복지조직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좀 더 대인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자 3-5년마다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 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태국정부는 사회복지 발달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있는지 소개해주시시오.

태국 사회복지의 역사는 약 3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많은 왕들과 왕족들 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태국 사회복지의 효시였다고 본다. 또 빈곤에 대한 인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비, 친절과 같은 종교적인 뿌리에서도 볼 수 있다. 빈곤과 궁핍은 지금까지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된 문제로 남아있고, 이러한 빈곤층은 전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빈곤계층과 많은 사회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자 '국가 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개발 계획'도 사회복지분야의 이해당사자들과 우리 대학 임직원들의 참여로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부재와 사회·경제·정책 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까지도 정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입안자들과 집행자, NGO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다.

▶ 태국에는 사회복지전문성을 위해 어떤 자격증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시오.

아쉽게도 아직까지 태국에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다. 정책을 결정하는 의원들이 사회복지 전문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과거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성의 필요와 자격증이 필요한 적절한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현재 태국의 사회문제 중에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시오.

우리는 매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주된 쟁점중의 하나는 '아동보호 체계개발과 지역사회 역량강화'이다. 태국 내의 여러 지역에서 잠재적인 지역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사

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도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현실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들은 예전의 지식들과 경험들만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위한 보수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태국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태국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이미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이해해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되고 사회 각 분야의 위기상황에 개입하기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태국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도 과거보다 사회복지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권리를 찾기위해 우리는 전문성을 지닌 팀을 구성하여 지식, 기술, 테크닉, 특히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기업,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전문적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 태국 사회복지계가 추구하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는 샌디에고 주립대학, 하와이 대학, 오키나와 대학, 그 외 일본의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현재 우리 교수진들은 이전보다 많은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대외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활동들로 확장해가고 있다. 그중에 하나인 APPLE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재난에 함께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각국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여 서로 협력하고 연구·조사한 것들을 공유한다면 그것은 모든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특히 재난 다발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APPLE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국의 가교역할을 해주는 한

국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님
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다. ■

